

(붙임 2)

**‘류큐 왕국의 보물’ 특별전
유물 사진과 설명**



국왕의 왕관
왕관: 18세기 / 비녀: 17~18세기
나하시역사박물관 소장 / 일본 국보

류큐 국왕이 중요한 국가의식이 있을 때 착용한 관이다. 중국 명나라 황실에서는 류큐 국왕을 책봉할 때 관복과 함께 관을 하사했다.

※ 개막 후 2주간(2014.12.9.~21.) 특별 공개



국왕의 의례용 의상(赤地龍瑞雲嶽山文様縹珍唐衣裳)
18~19세기
나하시역사박물관 / 일본 국보

류큐 국왕이 중국에서 온 책봉사를 영접할 때나 설날 등 왕국의 공식 행사 때 착용한 의례용 복식이다. 원래 명나라 황실에서 류큐 국왕 책봉 때 관을 비롯한 기타 복식과 함께 내려주었으나 명 말기부터는 류큐 국내에서 제작, 수선하였다.

※ 개막 후 2주간(2014.12.9.~21.) 특별 공개 후 교체 전시



왕자용 용보주문 빙가타 겹옷
(紅色地龍寶珠瑞雲文様紅型平絹衿衣裳 (裏) 紅平絹地)
18~19세기
나하시역사박물관 / 일본 국보

붉은색 바탕에 용과 화염보주 문양을 빙가타(紅型)기법으로 염색한 의복이다. 소매가 길고 겨드랑이 아래의 소매통이 터져있는 의상은 관례(冠禮)를 치르지 않은 왕자의 복식이다. 류큐의 전통 염색인 ‘빙가타(紅型) 방식’으로 화려하게 염색하였다.

※ 개막 후 2주간(2014.12.9.~21.) 특별 공개 후 교체 전시

* 빙가타 염색 기법: 가타조메(型染)라는 형지로 무늬를 박아 염색하는 기법으로 남방,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쇼우케이왕(尚敬王) 시대에 오키나와풍으로 완성되었다. 무늬는 중국풍, 남방풍도, 일본풍 등 다양하며, 특히 쇼씨 왕가의 빙가타에는 중국풍 무늬가 많이 보인다.



왕실 의례용 기물(美御前御揃)
17~18세기
나하시역사박물관 / 일본 국보

류큐 왕실 여성과 국왕의 사적 생활공간인 우치바부(御内原)에서 축하연 등의 의식에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중앙에 금·은 술그릇, 우측에 찬합, 좌측에 한 쌍의 유리구슬 술병이 쇼씨(尚氏) 왕조의 문장인 소용돌이문이 새겨진 원형 소반 위에 놓여졌다. 이 의례용 기물 전체를 일컬어 ‘누메우스리(美御前御揃)’라고 부른다.



류큐 왕국 지도(琉球地圖)
1696년
오키나와현립박물관·미술관

사쓰마薩摩·오스미大隅로부터 토카라 열도, 아미미(奄美) 제도를 거쳐 류큐 왕국에 이르는 무역 항로가 그려진 지도이다. 난세이(南西) 제도의 섬들을 잇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어 이 해역의 교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왕실 장례 의식을 기록한 책(御葬具圖帳)
1901년경
나하시역사박물관 / 일본 국보

류큐 왕실의 장례 의식에 사용된 도구·제단의 모습과 왕릉인 다마우둔(玉陵)에 제관과 제의용품을 배치하는 법식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흑칠 나전 화조문 쟁반(黑漆花鳥螺鈿密陀繪漆繪盆)
18~19세기
우라소에시미술관

흑칠(黑漆) 쟁반으로 금박(金箔)·밀타회(密陀繪)·칠회(漆繪) 등의 다양한 류큐 왕국의 칠기 제작 기법으로 갈대, 부용화와 한 쌍의 물총새를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흑칠 나전 쌍룡문 큰 쟁반(黑漆雙龍螺鈿大盤)
17~18세기
오키나와 류라시마 재단

흑칠(黑漆) 쟁반으로 중앙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화염보주를 둘러싼 두 마리의 오조룡(五爪龍)이 나전(螺鈿)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나전칠기는 중국에 보내는 진공품(進貢品)으로서 류큐 왕국의 왕실 공예 제작소인 가이즈리 부교우슈(具擯奉行所)에서 대량으로 제작한 것이다.



주칠 박희 산수인물문 소반(朱漆山水人物箔繪東道盆)

18~19세기

우라소에시미술관 / 우라소에시지정유형문화재

원형이며 뚜껑과 몸체가 서로 맞물리는 형태의 소반인 '동도분(東道盆)'이다. 누각산수(樓閣山水), 모란당초문 등을 금박(金箔) 기법으로 장식했다. 내부에는 옥을 깎아 만든 9개의 작은 접시가 들어있다. 동도분은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 요리를 담아내는 도구로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술잔(盞)

19세기

도쿄국립박물관

류큐 왕국 전통의 도자기인 '쓰보야야키(壺屋焼)'의 잔이다. 바깥쪽에 녹색·청·적색 등의 안료를 전체적으로 써우거나 물방울무늬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하였다. 쓰보야야키는 류큐 왕국의 관요(官窯)인 쓰보야에서 제작된 도자기를 총칭하는 말로, 조선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 유약을 바른 도자기가 만들어졌다.



류큐 사절단의 에도 행렬 그림(琉球人江戸入錦繪)

1832년경

오키나와현립박물관·미술관

1832년 에도(江戸)로 향하는 류큐 사절 일행을 그린 다색판화이다. 모두 5장면으로 1·2장에는 노차악(路次樂), 3장에는 장한사(掌翰使)·패(牌)와 산개(傘蓋)를 든 인물, 4장에는 정사와 함께 5장까지 이어지는 악동자(樂童子)가 그려져 있다. 17세기 초 사쓰마번(薩摩藩)에 침공당한 후 류큐 왕국은 에도 막부에 총 19차례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류큐 무역선 그림(進貢船圖)

18세기

오키나와현립박물관·미술관

나하항那覇港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중앙에 "지봉귀국(旨辨歸國)"이라 쓰인 깃발을 휘날리며 막 돛을 내린 채 입항하는 진공선(進貢船)이 그려져 있다.

진공선은 류큐의 해상 무역을 위해 중국에서 정복적으로 제공한 무역선을 말한다.

근경에는 미에구스쿠(三重城)와 귀국을 축하하는 하류선(爬龍船) 경주, 환영 인파 등이 등장하며 원경에는 2호 진공선과 안바루센(山原船, 중국식 소형 상선)이 보인다.



눈 속의 꿩 그림

(紙本着色雪中雉子之圖)

자마미 요소(座間味庸昌)

18세기

오키나와현립박물관·미술관

오키나와현 지정유형문화재

눈 속의 꿩과 장미를 그린 것으로 류큐의 왕실 화가 자마미 요소(座間味庸昌 중국명 殷元良 1718~1767년)가 쇼씨 왕실에 소장된 청대 화가 장성(章聲)의 '설중치자도(雪中雉子圖)'를 모사한 것이다. 눈이 내리지 않는 류큐에서 활동한 화가가 외국의 그림을 통해 설경을 표현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류큐팔경 중 "이즈미자키에 뜬 달"(琉球八景 中 泉崎夜月)

가츠시카 호쿠사이

19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일본의 대표적인 우키요에 화가인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년)가 그린 '류큐 팔경(琉球八景)' 중 한 작품이다. 1756년에 류큐를 방문했던 중국인 주황(周煌)의 저술 『유구국지략(琉球國志略)』의 삽화 '구양팔경도(球陽八景圖)'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무채색인 『유구국지략』의 삽화를 참고하여 남색, 노랑색, 녹색, 연두색 등을 사용하여 담채로 류큐의 팔경을 제작했다.

이 그림은 나하(羅覇)의 구모지가와(久茂地川) 하구에 걸쳐있었던 이즈미자키 다리(泉崎橋)의 밤 풍경을 그린 것이다.



"계유년고려장인의장조"명 기와(“癸酉年高麗匠人瓦匠造”銘平瓦)

13~14세기

우라소에서 교육위원회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고려계 기와로 발견된 곳은 류큐 통일 이전의 산잔(三山) 시대에 주잔(中山) 왕조의 왕성이었던 우라소에(浦添)성에서 출토되었다. '계유년(癸酉年)'이라는 간지(干支)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1273년과 1393년설이 가장 유력하다. 오키나와에서 이러한 기와가 다량 출토된 것을 통해 류큐 왕국 성립 이전부터 오키나와에 한반도의 문물이 전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하지도(天下地圖)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채색 필사본 세계지도이다. 중국의 13성과 조선, 류큐가 그려져 있다. 지도에서 류큐국은 조선에서 5,430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이 그려져 있지 않은 반면, 류큐는 조선 영토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과장되게 그려져 있어 류큐에 대한 당시의 큰 관심을 엿볼 수 있다.